

사설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

불교 이야기 중 가리왕의 전설이 있다. 도망치던 비둘기를 숨겨준 가리왕에게 뒤쫓아온 독수리가 비둘기를 내달라고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자 독수리는 가리왕에게 '당신은 공병하지 못하다. 비둘기를 살려주는 것이 당신의 자비라면 배고파 죽는 나를 방치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자비심인가?' 하고 비판한다. 이에 가리왕은 자신의 살을 베어 비둘기 무게만큼 주기로 제안하고, 아무리 많은 살점을 베어 달아도 비둘기 무게만큼 나가지를 않았다. 마침내 가리왕 자신이 저울에 올라서자 비둘기 무게만큼 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상은 생명이 그 자체가 목적이기에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사람이니까 그들이 한국인보다 소중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반면 한

국인이 미국인보다 우월하다는 논리도 있을 수 없다. 생명의 가치는 우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에는 차별이 있는가 보다. 미군 계도차에 두 명의 여중생이 깔려 사망했음에도 정작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국가우월주의와 생명차별의식이 이면에 깔려 있다. 법적으로는 SOFA로 불리는 불평등조약 때문이다. 진정 미국이 우리의 우방임을 자처한다면 한국인의 인권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평등한 조약이 되도록 SOFA를 개정하여야 한다. 작금의 보편 인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미국이 인권을 경시하고 있지 않은가? 두 여중생의 꽃다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SOFA개정에 솔선해야 한다.

사찰환경 수호기구 만들자

2002년 한 해 동안 불교계는 수행환경지키기에 유례없이 많은 힘을 쏟았다. 서울외곽 순환도로의 북한산 권동 노선을 변경하기 위한 불교계의 의견은 절구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결말이 나지 않았다. 해가 넘어 가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대통령후보들이 북한산과 천성산 관련 도로와 고속철 공사의 '백지화' 혹은 그에 준하는 비중으로 내놓는 공약에 기대려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시공사는 '연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에 따른다'고 한 합의사항을 은근히 강조하는 모양새까지 취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미타사와 강남 봉은사 옆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돼 사찰을 휘하 둘러다보는가 하면 경기도 용인의 화운사는 고압 송전탑에 포위될 지경이다. 봉은사 인근에는

대규모 위락시설 공사가 강행되고 있고 동명 미륵산에는 케이블카 공사도 사찰이 위협받고 있다.
사찰이 위치한 청정공간을 파괴는 개발의 바람은 찾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일'이 터질 때마다 사부대중을 동원해 반대 시위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러 번의 경험에 의하면 '일'이 터지고 나면 언제나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사찰이 개발의 바람을 먼저 감지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때문에 종단을 초월하는 범불교적인 사찰환경수호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문화유산과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초종단적 기구를 설립해 거기에 모든 종단을 비롯한 불교 구성원들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 주자.

진각종 의료법인 내년1월 설립

중회의결후 '추진위' 구성, 복지부에 인가신청

진각종이 의료법인을 설립한다. 진각종(총무원장 효암)은 17일 열린 임시중앙총회에 의료법인 설립추진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중회의 의결을 거쳐는 대외 의료법인 설립 실무추진할 '가칭' 진각의료법인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진각종은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의료법인 정관 등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1월 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

첫사업으로 대구에 노인전문병원

경주 위덕대 의과대 신설 구체화

진각종은 노인전문병원, 종합병원 등을 순차적으로 건립한다. 특히 기존 진각복지재단, 학교법인 회당학원 등의 종단 산하 법인체와 연계해 병원 건립에 따른 의료법인의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경주 위

덕대학교 의과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진각종은 우선 첫 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을 내년 상반기에 개원한다. 노인전문병원은 대구 대봉동에 소재한 8층 건물의 진각문화회관에 세워지며, 규모는 병상 70~90개 정도를, 소요 예산은 20~40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병원 이용대상은 스승진각종 승려의 통행 뿐만 아니라, 신도 및 일반 환자 등이며,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진각종은 이미 전국 노인요양병원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의 노인전문병원 설치에 따른 제반 조사를 완료했다. 진각종이 이번에 의료법인을 설립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존 진각복지재단·학교법인 회당학

원·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등 4개 법인체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진각종의 의료법인 설립은 불교계에서 조계종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다 많은 불자들이 의료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최근 정부가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설립과도 그 취지가 맞아 떨어져 불교계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법인 설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공 정사대구 경산심인당 주교는 "현재 의료법인의 모든 준비 작업은 완료됐다. 노인종합병원은 현재 회관에 있는 세입자들이 나가는 대로 곧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병원 건립과 위덕대학교 의과대학 설립도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찰 인터넷설치 정부지원을”

불교정보화협의회 총회, 건의문 채택

불교정보화협의회(회장 현성)는 11월 29일 오후 6시 창립총회를 갖고 회칙을 확정했다. 회원으로 참여한 14개 종단과 단체 가운데 10개 종단·단체 대표가 참가한 이날 총회에서는 캠페인 세미나 등 향후 사업계획도 세웠다.

특히 협의회는 도심외곽 사찰들이 초고속인터넷망을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 정부의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연태 기자

불교문화상품개발 세미나 13~14일 강화 전등사에서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은 13일~14일 강화 전등사에서 '불교문화관광 상품 개발'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

한다. 불교의 상징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 개발 가능성을 조명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이미지의 산업적 응용의 현황과 전망이점인 동국대 미술과 교수 △불교로 본 한국인의 조형의식(윤병모 경원대 미술과

김주일 기자

‘현대’ 만평 박 구 원
컨테이너에서 옮겨올 나겠네
[Image: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sitting inside a container labeled '복지시설' (Welfare Facility). The person looks thoughtful. The caption below reads '컨테이너에서 옮겨올 나겠네' (I will move from the container).]

김철우 기자

총무원장 남정스님 중회의장 화담스님

총회중 중앙총회 개원, 내년예산 96억 확정

총회중 제14대 중앙총회가 11월 29일 경기도 남양주 수진사 대웅전에서 개원식을 갖고, 신임 중앙총회 의장에 화담스님(연화사)을 선출했다. 또 총회는 14대 총무원장에 남정스님을 재선출했으며, 내년도 예산 96억여 원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중앙 5원장 등 중무행정 기관 부서장을 선출했다.

선출된 부서장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장 동오(원불사) △선원장 금산(정수사) △교육원장 청해(만경사) △감찰원장 고담(현불정사) △포교원장 청담(관음사) △호계원장 만오(성덕사) △문화원장 도공(갑로사) △총무원 부원장 남은(원적사) △기획실장 행원(석보사) △서울 총무원장 현오(약왕정사) 스님. 김철우 기자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연말까지 사은행사... 관음보살도 증명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를 보다 편리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시면 지로유지를 들고 일일이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가지지 않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독자가 되시면서 구독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분이나 기존 독자가 새 구독료(월 5000원)로 자동이체 하시는 분에게는 사은행의 뜻으로 미려한 색감의 16도 정밀 인쇄된 관세음보살도(김의식 작, 27cm×37cm, 시중판매가 2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이 보살도는 그대로 벽에 거시거나 액자에 넣고 보시면 수준 높은 예술품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방법
1.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 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길 하면 됩니다.
2. 자동이체 신청가능 은행: 모든 은행 및 수협, 우체국(11월부터 시행)
3. 이체 희망일: 매월 5, 15, 25일 중 택일
▶자동이체 문의: 신청 전화 (02)737-0090(직통) (02)737-8881(대표)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김규석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불교총지종 창종 30주년 기념
www.chongji.or.kr
한국불교 최초의 일대불사!
태장계·금강계만다라 봉안 대법회
불교총지종에서는 창종 3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불교사상 처음으로 胎藏界曼荼羅와 金剛界曼荼羅의 兩部 曼荼羅를 조성하여 봉안하는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태장계와 금강계의 양부 만다라는 대승불교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大日經과 金剛頂經에 의거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 종단 연구진의 7년간에 걸친 기획과 정통밀교의 맥을 이으려는 전 종도의 발원에 의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불교사상 초유의 일대사이며 불교중흥을 알리는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계대덕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으로 법회가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총기31(2002)년 12월
불교총지종 統理院長 法空 합장
▶일시: 총기31(2002)년 12월 12일(목) 오후 2시 ▶장소: 불교총지종 총지사(전화 552-1080~3)